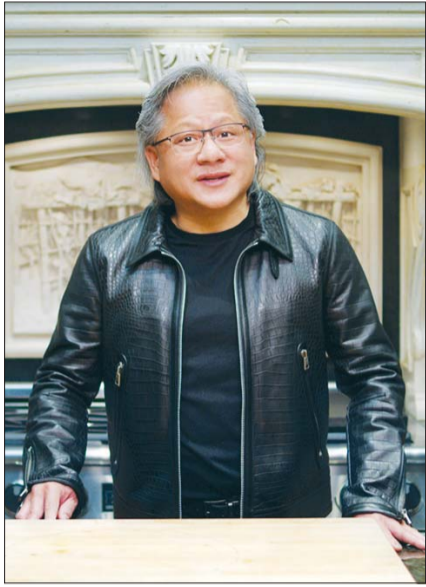


엔비디아, AI 수혜 ‘깜짝실적’... 반도체 업계 반등 ‘기대감’

2~4월까지 매출 110억달러 예상
챗GPT위한 서버업계 증설 본격화
GPU·AI 반도체 생산 수혜 추정
기술 경쟁·인력 채용 활발해져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엔비디아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시화하고 있다. 고성능 서버 수요가 회복세를 분명히 하면서다. 메모리 업계도 다시 투자에 나설 분위기, 시장 회복은 여전히 속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엔비디아는 24일(현지시간) 2월부터 4월까지 매출 110억달러(한화 약 14조5000억원)를 예상하는 전망을 발표했다.

월가에서 전망한 71억5000만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숫자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반도체 불황이 비메모리에도 확대하며 상반기까지는 부정적이었던 업계 전망을 완전히 뒤집은 것.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데이터 센터 역할이 크다는 분석이다. 챗GPT를 위한 서버 업계 증설이 본격화하면서 GPU와 AI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수혜를 입은 것을 추정된다. 이는 메모리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AI 서버에서는 HBM을 비롯한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메모리 공급 과잉이 조기에 해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올해 공급 초과를 예상했던 대만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글로벌 D램 공급량이 수요를 하회할 것이라고 수정했다. 업계가 감산을 본격화하며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 7월부터는 다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수 있다고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다.

수요 회복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신한투자증권은 ‘끝이 보인다’는 보고서를 통해 4월 제조업 지수가 역사적 하단에 근접한 반면 수요도 바닥에 다다랐으며 업황이 이미 반등을 시작했다고 봤다. 2분기 93.5%인 상대 수요가 3분

기에는 99%, 4분기에는 105%로 가속화할 것이라는 수지도 제시했다.

특히 DDR5 D램이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익성을 반등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DDR4와는 달리 DDR5는 재고가 정상수준이고, 인텔 4세대 제온 보급에 따른 서버 투자 확대도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신한투자증권은 3분기 D램 ASP(평균판매단가)가 반등할 수 있다고도 봤다.

실제로 메모리 업계는 DDR4를 중심으로 감산을 하면서도, 5세대 10나노(1b)급 D램 양산을 다시 서두르고 있다. 삼성전자가 12나노급 D램 양산을 시작하며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평가받았던 DDR5 비중을 대폭 높인 상황,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조만간 양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 시점이 기술력뿐 아니라 수요에도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고효율 메모리 수요가 늘어

나는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 인력 채용도 다시 활발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삼성커리어에서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2~3월이었던 예년보다는 다소 늦었다. SK하이닉스도 지난 11일부터 6월 2일까지 채용 포털을 통해 HBM4를 개발할 디지털 설계 인력과 D램 인터페이스 회로 설계 분석 경력직을 뽑고 있다. 그 밖에도 소부장 업체들 다수가 본격적으로 채용 문을 열어두는 모습이다.

다만 반도체가 다시 호황기로 접어들 수 있을지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올해까지는 DDR4 재고를 해결해야 하는 데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리오픈링 효과도 미미, 애플 아이폰 등 출하량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전자,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 본격화

1호 충전기 제품 생산 세레머니 진행
100kW·200kW 급속 충전기 생산
안정성·효율성 등 모두 개선



(왼쪽부터) 하이비차저 강동주 대표, GS에너지 김성원 에너지자원사업본부장, LG전자 장익환 BS사업본부장, GS엠비즈 허철홍 대표 이사

LG전자가 미래 모빌리티 핵심 인프라,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 맞을 올렸다.

LG전자는 24일 경기도 LG디지털파크에서 전기차 충전기 ‘1호 충전기 제품 생산’ 오픈 세레머니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레머니에서는 7kW 완속 충전기와 함께 100kW와 200kW급 급속 충전기 4종을 처음 선보였다. 방수방진 등 안정성은 물론 얇은 두께에 2채널 디스플레이로 공간을 효율화하고, 디스플레이 설치와 원격 업데이트 등으로 편리성과 효율성을 모두 개선했다.

LG전자는 일찌감치 전기차 생산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에도 공을 들여왔다. 2018년 전기차 충전 솔루션 선형 개발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GS칼텍스 미래형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 통합 관리 솔루션을 공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EV 충전사업담당을 신설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을 본격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충전기 전문 업체 애플망고를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했다. GS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6대 4비율로 지분을 보유한다. 이번에 사명을 하이비차저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충전기 개발과 생산 능력을 내재화하고 있다. 충전소 운영 노하우와 고객

접점을 확보한 GS와 함께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으로 확대도 준비 중이다.

LG전자는 충전기 생산뿐 아니라 충전 고객들을 대상으로 ‘충전 경험 가치’를 제고하며 맞춤형 복합 충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장 확대폭이 큰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제품 출시와 현지 충전 사업자와의 사업모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G전자 EV충전사업담당 서흥규 상무는 “이번 충전기 생산은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솔루션 사업으로서 거듭나는 중요한 모멘텀”이라며 “고객에게는 편리하고 빠른 충전, 충전 사업자에게는 안정적인 품질기반으로 다양한 충전기 품팩터, 신규 서비스 등의 차별화된 충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국제인증 획득

LX판토스, 배터리 운송 경쟁력 확보
관리체계구축·전문성 확보 증명

종합물류기업 LX판토스(대표 최원혁)가 국내 기업 최초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품질 인증(CEIV Li-Batt)’을 획득했다. 글로벌 전기차·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배터리 운송 분야에서 특화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관련 물류사업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LX판토스는 25일 인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인증 수여식 행사에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리튬 배터리 항공운송 품질관리체계 인증인 ‘CEIV Li-Batt’을 국내 기업 최초로 받았다고 밝혔다.

‘CEIV Li-Batt’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엄격한 위험물 관리 체계 하에 리튬 배터리 화물의 안정적인 항공운송을 보장하는 국제표준 인증 제도이다.

리튬 배터리 화물에 대한 운송 절차와 시설, 규정 준수, 전문 인력 등 총 10

개 분야 33개 항목을 까다롭게 평가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리튬 배터리는 일반 화물과는 달리 화재와 폭발 위험성으로 운송 및 보관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요하기 때문에 취급 난이도가 매우 높다. 리튬 배터리를 취급하는 물류업체에 대한 국제기구의 공신력 있는 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LX판토스는 이번 인증을 통해 위험물인 리튬 배터리 화물의 취급 전 과정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확보했음을 증명했다.

글로벌 항공물류 시장에서의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 전기차·배터리 물류 시장 공략 및 사업 확대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용 이차전지 시장 규모는 2035년 6천160억 달러(815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전량치(1천210억달러)의 5배 수준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애경케미칼, 이차전지 연구·개발 집중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

애경케미칼이 합성수지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통해 이차전지 소재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기존 이차전지 소재들의 단점을 개선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연달아 개발하며 이목을 끌고 있다.

애경케미칼은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용 바인더’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성능 시험을 통해

충·방전 중 실리콘계 음극재의 부피가 변하더라도 구성 요소들 간 접착력과 초기 전극 구조가 효과적으로 유지돼 배터리의 사이클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국내외 특허 등록을 마무리했으며, 국내는 물론이고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 업체들과도 적용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방열접착제는 충·방전 시 발생하는 배터리의 열을 방출해 과열을 방지함으로써 이차전지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 소재로, 글로벌 시장조사기

업에서는 전기차 보급 성장세에 힘입어 오는 2028년 3조원 수준까지 시장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로 사용한 실리콘 타입의 방열접착제는 냉각 성능은 우수한 반면, 접착력이 충분하지 않아 주행 중 발생하는 진동으로 셀과 모듈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애경케미칼 측은 “애경케미칼이 개발한 제품은 열전도도와 접착력을 모두 갖춘 소재로, 기존 실리콘 타입에 비해 접착력이 높고 기계적 강도가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목·토요일 주2회 중 시안 경유 노선

대한항공이 5월 25일부터 중국 정저우에 화물기를 신규 취항한다.

정저우 노선은 주 2회(목·토) 오전 0시 5분 인천공항에서 중국 시안을 경유해 도착한 뒤 다시 인천으로 돌아오는 노선이다. 연료 효율성이 높은 B777 화물기가 투입된다.

대한항공은 정저우가 중국 중서부에 위치한 내륙의 물류 허브이자 중국 중부굴기의 중심 도시로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 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휴대폰과 전자부품 등 제조업이 발달해 있다. 또 정저우 인근에 전기차 제조

업체들의 배터리 공장 신설과 로봇산업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중으로 향후 신규 수요 개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저우는 상하이, 톈진, 광저우, 시안, 홍콩에 이어 대한항공의 6번째 화물기 운영 중국 노선이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정저우 노선 화물기 신규 취항은 중국 방역 규제 완화로 인한 중국 내 생산 정상화와 맞물려 신수요 창출, 수익 기반 확장을 위한 발판”이라며 “중국 화물 노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